

우울-강박집단과 비우울-강박집단의 문제해결 과제 반응양식 및 주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이 훈 진·원 호 택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강박과 우울의 밀접한 관련성에 기초해 강박과 우울증상 모두를 보이는 집단과 두 증상 중 하나만 보이는 집단, 그리고 두 증상 모두 보이지 않는 집단을 나누어 문제해결과제 수행시의 반응양식과 과제수행후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고 비교해보기 위해 행해졌다. 주요가정은, 비우울-강박집단이 자신의 증상을 자아동질적인 것으로 보고 상대적인 자신감을 갖는데 반해 우울-강박집단은 자신의 증상을 자아이질적인 것으로 보며 자신의 증상에 저항하고 그로인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의 정도도 높으므로 자아개념도 부정적이고 자신감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기지향적 주의가 유도되는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우울-강박집단은 자신감의 부족과 우유부단성이 두드러져 과제수행에서의 신중성이 증가하며 자기평가시의 자신감도 멀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비우울-강박집단은 상대적인 자신감을 보여 과제수행시 우유부단성이 감소하고 수행 후 평가도 과대평가할 것으로 예언되었다. 주요 결과는, 비우울-강박집단의 경우 사적과제수행조건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상대적 자신감을 보여 우유부단성이 감소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있는 과제를 수행했으며, 과제수행 후의 주관적 평가에서도 자신의 수행을 과대평가 했다. 그리고 사적과제수행조건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신중하고 우유부단한 수행을 보였다. 우울-강박집단의 경우 사적과제수행조건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더 신중한 과제수행양식을 보이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사적과제수행 후에 자신의 수행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평가유지모형과 통제모형 및 동기모형 등에 의해 각각 논의되었다. 이 외에 본 연구의 의의와 치료적 함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등이 논의되었다.

최근 중고생과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장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강박증 연구에서도 특히 대학생들이 겪고있는 강박장애의 정도와 그것이 그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강박증의 발병이 성인 초기에 많다는 점(서광윤, 1978; Rachman & Hodgson, 1980)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서도 강박 경향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사실(Rachman & Hodgson, 1980; Salkovskis & Harrison, 1984),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와 학업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원

호택과 이민규, 1984)에서도 시사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임상연구의 추세는 어느 한 증상만을 따로 떼어 연구하기보다는 관련성이 높은 증상들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상호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강박증의 경우 우울증과의 높은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Barlow, 1988; Emmelkamp, 1982; Rachman & Hodgson, 1980; Reed, 1985). 전통적으로 강박장애는 불안이 그 핵심적인 정서로 간주되어 왔으나 강박증과 관련된 정서상태가 단순히 불안으로만 기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eed(1985)는 자신

의 일련의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불안뿐 아니라 적대감, 우울이 강박행동과 연합되어 있으며 불안보다는 우울이 더 공통적인 정서적 부수물이라고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Walker와 Beech(1969)는 “기분상태(mood stat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강박증과 우울증은 역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자기비하, 무력감, 걱정, 낙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부족 등이 강박증에서 경험되는 기분상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우유부단함은 두 증상의 가장 공통적인 특성이다(Insel, 1984; Rachman & Hodgson, 1980; Reed, 1985). 그러므로 강박증과 우울증 연구에 있어 두 증상이 모두 동반된 경우와 어느 한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강박증 연구가 이전에는 주로 정서상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지만 최근엔 정서적 측면보다는 그 인지적-행동적 특성의 규명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볼때 강박증과 우울증의 공통적 특성인 우유부단성이 반영될 수 있는 문제해결과제 또는 의사결정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강박집단이나 우울집단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제에서의 수행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알아본 연구들이 몇 있으나 그 대부분이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이고 또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Gotlib & Asamow, 1979; Heppner, Baumgardner, & Jackson, 1985; Klein, Fencil-Morse, & Seligman, 1976; Perkins, Meyers, & Cohen, 1988; Sacco & Hokanson, 1978). 그리고 이 연구들은 대부분 문제해결과제에서의 수행 결과나 사전기대만을 알아보았을 뿐 문제해결과정에서의 반응양식 자체는 알아보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과제수행패턴과 주관적 평가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볼 수 없었다. 과제수행패턴 연구의 중요성은 문제해결 유형이 중요한 성격측정치가 되면 성격과 능력간의 가교가 된다는 점(Nunnally, 1978)에서도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문제해결과제에서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수행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박증 연구가 불안에만 초점을 두어 그 인지적 특성의 규명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민규와 원호택,

1988)에서도 시사되는 점이다. 또 강박증의 일차적 문제가 인지적 특성에 기인된다는 사실(Carr, 1974; Reed, 1985)로 미루어 볼때도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임상집단들이 사적-공적 상황의 차이에 예민하다는 연구결과들(이옥정, 1988; Benassi & Mahler, 1985; Carver & Scheier, 1982; Sacco & Ilokanson, 1978; Turner, Steketee, & Foa, 1979; Thyer, Curtis, & Fechner, 1984)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뚜렷한 상황적 차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구나 강박집단이 비판에 민감하다는 가정과 그것을 지지하는 조사연구들(Turner, Stekete, & Foa, 1979; Thyer, Curtis, & Fechner, 1984)의 결과를 놓고 볼때, 강박집단이 사적 과제수행조건과 공적평가상황에서 어떤 행동적 인지적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울-강박, 비우울-강박, 우울-비강박, 비우울-비강박집단을 각각 선발하여 그들이 자신의 강박증상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저항과 일상 생활에서 장애를 받는 정도, 불안의 정도, 인지적 실패의 정도를 질문지 연구를 통해 알아본 후, 문제해결과제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사적과제수행조건과 공적평가상황에서 보이는 문제해결과정에서의 반응양식 및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알아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문제해결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오류와 강박경향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에서는 과제를 컴퓨터를 통해 제시하고 피험자가 그 해결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패턴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과제 수행시 시간제한은 두지 않는데, 이는 시간적 제약 자체가 스트레스요인이 되기 때문에(Janis, 1982; Keinan, 1987) 사적-공적 상황 차이에 따른 순수한 심리적 효과와 혼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험자들이 문제항목들을 고려하는 시간은 피험자가 그 상황을 회피하고 빨리 벗어나려 하는지 아니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황에 대처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과제수행에서의 주요 측정치는 조기종결여부, 선택지주사패턴, 반복고려횟수, 고려시간이다. 이 측정치들은 문제해결과제에서의 수행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

들이며, 강박증의 성격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과제해결 장면에서 도피하려고 아무렇게나 문제를 푸는지 아니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과제수행 직후의 주요 측정치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의 점수에 대한 예상과 정답항 결정시의 확신도이다. 이 측정치는 각 집단이 자신의 실제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비교하고, 즉 과대평가하는지, 과소평가하는지 또는 정확하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주관적 평가가 과제수행패턴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도출한 본 연구의 기본적 가정을 우울-강박, 비우울-강박 두 집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공적 조건의 차이는 피험자가 단지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돌린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조건에서 피험자가 그 상황을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동적인 과정의 차이를 낳는다(Carver & Scheier, 1982; Duval & Wicklund, 1972; Wicklund & Gollwitzer, 1987). 공적평가상황은 자기지향적 주의를 유도함으로써 공적자의식과 공적인 자기평가 상황을 이끌고 피험자는 인상관리적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고 자존심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다.

둘째, 비우울-강박집단이 자신의 증상을 자아동질적인 것으로 보고 상대적인 자신감을 갖는데 반해 우울-강박집단은 자신의 증상을 자아이질적인 것으로 보며 자신의 증상에 저항하고 그로인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의 정도도 높으므로 자아개념도 부정적이고 자신감도 부족할 것이다(Rachman & Hodgson, 1980; Reed, 1985). 따라서 자기지향적 주위가 유도되는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우울-강박집단은 자신감의 부족과 우유부단성이 두드러져 과제수행에서의 신중성이 증가하며 자기평가시의 자신감도 떨어질 것이고, 비우울-강박집단은 상대적인 자신감을 보여 과제수행시 우유부단성이 감소하고 수행 후 평가도 과대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본실험에서 시간제한이 없으므로 과제수행시의 이러한 자시감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비우울-비강박집단은 두 상황 모두에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비교적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다.

셋째, 실험상황이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험자가 실험과제에서 도피하려 하지 않고 적절한 반응을 통해 실험장면에 대처한다고 가정한다(Wicklund & Gollwitzer, 1987). 따라서 실험의 모든 조건에서 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선택지 고려시간은 조건간,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정에 따라 본실험의 구체적 예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예언1: 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조건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자신감이 감소되고 우유부단성이 증가해 조기종결수가 감소하고 반복고려횟수와 규칙적주사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반면, 비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조건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우유부단성이 감소해 조기종결수가 증가하고 반복고려횟수와 규칙적주사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그렇지만 고려시간은 조건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비우울-비강박집단은 조건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언2: 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후보다 평가자가 있는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한 후에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대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결정시 확신도도 낮게 평정할 것이다. 반면 비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후 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과제를 수행한 후에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대점수가 증가하여 실제의 자신의 수행보다도 높게 평가할 것이며 결정시의 확신도도 높게 평정할 것이다. 비우울-비강박집단은 조건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20명에게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1978)와 MOCI(Maudsley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Hodgson & Rach-

man, 1977)번안판을 실시하여 BDI점수와 MOCI총점 모두에서 상위 20%내에 드는 집단을 우울-강박집단, MOCI에서는 상위 20%내에 들면서 동시에 BDI에서는 하위 30%내에 드는 집단을 비우울-강박집단, BDI에서는 상위 20%내에 들면서 동시에 MOCI에서는 하위 30%내에 드는 집단을 우울-비강박집단, 두 측정치 모두에서 하위 20%내에 드는 집단을 비우울-비강박 집단으로 선별하였다. 비우울-강박집단과 우울-비강박집단 선별시 기준을 하위 30%로 낮춘 것은 우울과 강박간의 높은 관련성으로 인해 어느 한 증상만을 보이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위의 기준에 따라 각 집단에 30명씩 총 120명의 피험자가 선별되었는데, 그 중 112명의 피험자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집단별 남녀구성은 우울-강박집단은 남자 19명, 여자 9명이고 비우울-강박집단은 남자 20명, 여자 8명이었으며 우울-비강박집단의 경우는 남자 17명, 여자 11명이었고, 비우울-비강박집단은 남자 20명, 여자 8명이었다. 각 집단의 피험자는 과제 수행조건별로 14명씩 무선할당(여자의 경우도 동일 비율로)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에게는 LOI (Leyton Obsessional Inventory: Cooper, 1970)와 CFQ (Cognitive Failure Questionnaire: Broadbent, Cooper, Fitzgerald, & Parkes, 1982)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강박증상에 저항하는 정도와 그로인해 일상생활에서 방해받는 정도, 그리고 인지적 실패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집단별 BDI, MOCI, LOI, 및 CFQ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LOI하위척도와 CFQ점수 중 우울-강박, 비우울-강박집단간의 t-검증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LOI의 증상, $t(54)=2.50, p<.05$, 방해, $t(54)=3.42, p<.001$, 점수와 CFQ, $t(54)=3.09, p<.01$ 였다. 그리고 LOI의 저항점수에서는 경향성을 보였다, $t(54)=1.88, p<.065$. 그렇지만 LOI 특질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t(54)=0.99, n.s$. 따라서 우울-강박집단과 비우울-강박집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특질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강박증상과 강박증상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방해받는 정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인지적 실패의 정도에서 다르며, 자신의 강박증상에 대해 저항하는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도 구

언어추리검사과제

예비연구에 의해 선정된 17문제를 사용하였다. 그 중 2문제는 연습문제로 사용되었으며 15문제가 본 시행에 사용되었다. 각 문제는 문제단어쌍과 5쌍의 선택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단어쌍과 가장 유사한 관계를 갖는 단어쌍을 찾는 것이 과제였다. 문제가 제시될 때는 문제단어쌍만이 화면에 제시되며 각 선택지는 피험자가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임의로 택함으로써 화면에 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었다. 5개의 선택지를 어떤 순서로 몇번 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피험자의 자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답항의 위치는 1에서 5까지 각각 3번씩 위치시켜 동등

표 1. 각 집단별 LOI 및 CFO점수

집 단	BDI	MOCI	LOI				CFQ
			증 상	특 질	저 항	방 해	
우울-강박	20.85 (5.83)	17.82 (3.48)	29.32 (5.79)	14.14 (2.81)	26.21 (13.33)	31.32 (14.39)	50.25 (11.67)
비우울-강박	4.14 (2.80)	16.61 (2.13)	25.50 (5.66)	13.35 (3.12)	20.04 (11.13)	19.68 (10.82)	41.54 (9.33)
비우울-비강박	1.71 (1.44)	3.11 (1.52)	8.36 (4.40)	5.86 (3.33)	4.68 (3.64)	3.68 (3.66)	46.29 (10.55)
우울-비강박	20.61 (4.93)	6.00 (2.29)	17.43 (4.79)	8.54 (2.56)	12.93 (6.87)	13.18 (7.10)	31.64 (10.14)

하게 하였다. 피험자가 시행을 시작하면 컴퓨터 화면의 중앙에 고정십자가가 제시되고, 그 위치에 문제단어쌍이 제시되었다. 피험자가 1에서 5의 숫자 중 하나를 택하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문제단어쌍 밑에 제시되며, 이어서 다른 번호를 택하면 먼저 제시되었던 단어쌍이 사라지고 그 위치에 새로 택한 번호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선택지 단어쌍은 다음 단어쌍이 선택될 때까지 제시되었으며, 문제단어쌍은 피험자가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단어쌍을 택해 답할 때까지 계속 제시되었다. 피험자가 답을 하는 방식은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지 단어쌍이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SPACE)자판을 누르는 것이었다. 피험자가 선택지를 제시해 본 순서와 제시시간이 컴퓨터에 기록되었다.

주관적 평가에 대한 질문지

언어처리검사과제에서의 수행에 대한 피험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질문지로서 실시되었다. 이 질문지에는 검사과제 수행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할 경우 피험자 자신은 몇점을 받았을 것 같은지를 묻는 것과, 각 문제에서 답을 할때 어느정도 확신을 갖고 답했는지를 %로 답하게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사후 질문으로서 과제수행 중의 주관적 경험을 묻고 7점척도로 답하게하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태불안질문지

과제수행 중의 피험자의 불안 및 스트레스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과제수행 직후 실시하였다.

절 차

피험자는 모두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피험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컴퓨터를 보고 앉게 한후 실험안내문을 읽어주었다. 실험안내문에는 실험의 목적,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실험절차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실험안내문을 읽어 주고 피험자가 실험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곧바로 연습시행을 시작하였다. 연습시행이 끝나고 피험자가 과제수행 방식에 익숙해지면 본시행을 시작하였다. 사적과제수행조건과 평가자참석조건은 본시행 동안에만 차이를 가졌다.

사적과제수행조건의 경우 본 시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실험자가 실험실 밖으로 나가고 피험자 혼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제수행이 끝나면 실험자를 부르도록 지시하고 나왔다. 반면 평가자참석조건의 경우 본시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실험자는 밖으로 나오고 대신 실험보조자가 들어와 피험자의 좌측 뒤쪽에 평가지를 들고 앉아 과제수행과정을 지켜보았다. 실험보조자는 피험자와 동성이었고, 실험 조건과 가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였다. 그리고 실험과제수행이 끝나는 즉시 실험보조자는 밖으로 나오고 그때 실험자가 들어갔다.

두 조건 모두에서, 실험과제수행이 끝나면 실험자가 들어가서 주관적평가 질문지와 상태불안질문지를 피험자에게 주고 완성하게 한후 다시 나왔다. 즉 사후질문지를 피험자 혼자있는 상황에서 완성하게 하는데 이는 주관적 평가시에 실험자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실험과제수행중에 평가자가 있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험과제수행과 관계없는 새로운 상황적 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피험자가 질문지들을 완성하고 나면 질문을 받고 debriefing을 하였다.

실험설계

본실험의 독립변인은 집단(4: 우울-강박, 비우울-강박, 우울-비강박, 비우울-비강박), 과제수행조건(2: 사적, 공적)이었으며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따라서 4×2 요인설계였다.

종속측정치

I. 과제수행시 반응양식

1. 조기종결문제수: 15문제 중에서 5개의 선택지를 다 고려하지 않고 답한 문제 수.
2. 선택지 고려횟수:
 - (1) 평균선택수-각 문제당 선택지를 제시해서 본 평균 횟수.
 - (2) 정답항 반복확인수-정답을 맞춘 문제에서 정답항을 반복 고려한 평균 횟수.
 - (3) 정답항 반복확인율-정답을 맞춘 문제들 중 정답항을 두번이상 고려한 후에 답한 문제의 비율.

(4) 정답항 반복확인시 주사수-정답항 반복확인시 정답항 이외의 선택지를 고려한 평균수.

3. 선택지 주사순서: 선택지를 고려한 순서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문제수. 즉 1-2-3-4-5 거나 5-4-3-2-1의 순서로 선택지를 고려한 문제수. 그런데 강박집단의 경우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가지기도 하므로 위의 두 순서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순서가 8문제이상(즉 15문제의 절반이상) 지속된 경우 규칙적인 주사로 간주한다.
4. 선택지 고려시간: 각 문제의 선택지를 화면에 제시하여 고려한 평균시간.

II. 자신의 수행에 대한 주관적 평가

1. 기대점수: 실험과제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가정할 경우 피험자 자신의 점수는 몇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한 점수.
2. 기대점수와 실제득점간의 차이 점수.
3. 응답시 확신도: 각 문제에 답할 때 어느정도의 확신을 갖고 답했는지를 %로 (0에서 100까지) 답한 점수.

결 과

과제수행에서의 반응양식

집단 및 조건에 따라 문제해결과제 수행에서의 반응양식이 다른지를 알아 보기 위해 조기종결문제수, 선택지 고려횟수, 선택지 주사순서, 선택지 고려시간을 측정하여 각각 집단×과제수행조건을 이원변량분석하였다. 그리고 과제수행에서의 실제 득점을 집단과 조건별로 측정해 비교하였다.

조기종결문제수

본 시행의 15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5개의 선택지를 다 고려하지 않고 정답을 결정해 답한 문제의 수를 집단과 조건 별로 측정하였다.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집단×과제수행조건변인을 이원변량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있었고, $F(3, 104)=3.98, p < .01$, 집단과 과제수행조건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F(3, 104)=6.35, p < .001$. 과제수행조건간의 주효과는 없었다, $F(1, 104)=2.31, n.s$. 이러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 그림 1이다.

상호작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효과를 분석

표 2. 집단 및 조건별 조기종결문제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조 건	
	사적과제수행조건	평가자참석조건
우울-강박집단	5.79(4.79)	2.36(2.24)
비우울-강박집단	0.71(0.91)	4.71(3.58)
우울-비강박집단	4.14(4.29)	6.00(4.15)
비우울-비강박집단	1.71(1.64)	3.07(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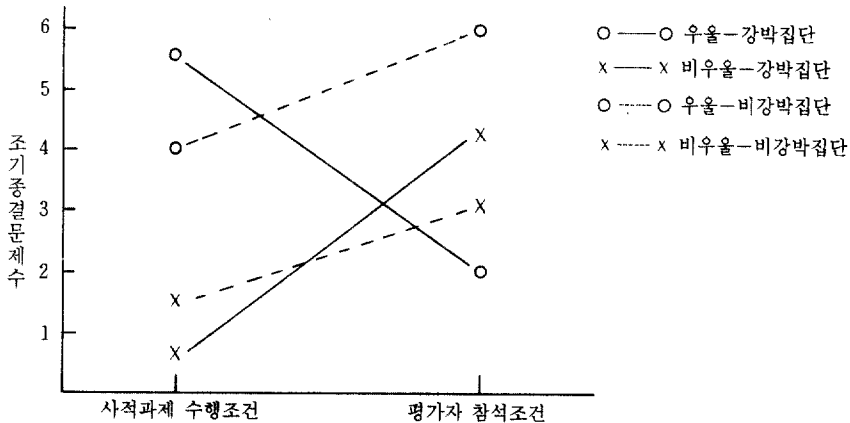


그림 2. 집단 및 조건별 조기종결문제수

해 본 결과, 우울-강박집단, $F(1,26)=5.88, p<.05$, 과 비우울-강박집단, $F(1,26)=16.39, p<.001$, 에서 과제수행조건간 차이의 단순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조건보다 평가자참석 조건에서 조기종결문제수가 의미있게 적었으며, 비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조건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조기종결문제수가 의미있게 많았다. 이는 예언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과제수행조건 각각에서 집단간의 수행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사적과제수행조건에서는 우울-강박집단이 비우울-강박집단과, $t(26)=3.89, p<.001$, 비우울-비강박집단보다, $t(26)=3.01, p<.01$, 조기종결수가 많았고, 우울-비강박집단은 비우울-강박집단보다 조기종결수가 많았다, $t(26)=2.92, p<.01$. 그리고 비우울-비강박집단과 비우울-강박집단 사이, $t(26)=2.00, p<.06$, 와 우울-비강박집단과 비우울-비강박집단 사이, $t(26)=1.98, p<.06$, 에는 차이의 경향성이 있었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는 우울-비강박집단이 우울-강박집단과, $t(26)=2.89, p<.01$, 비우울-비강박집단보다, $t(26)=2.24, p<.05$, 조기종결수가 많았고, 비우울-강박집단이 우울-강박집단보다 조기종결수가 많았다, $t(26)=2.09, p<.05$.

선택지 고려 횟수

선택지 고려횟수에는 평균선택수뿐 아니라 정답을

맞춘 문제에서의 정답항 반복확인수, 정답항 반복확인율, 정답항 반복확인시 주사수등이 분석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선택지를 많이 보는 것이 곧 결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정답항을 결정하기까지 그 정답항과 다른 선택지들을 몇번이나 고려했는지가 결정의 어려움을 더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평균선택수

각각의 문제에서 선택지를 제시해서본 평균 횟수를 집단과 조건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집단×과제수행조건변인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와, $F(3,104)=4.62, p<.01$, 과제수행조건의 주효과, $F(1,104)=6.35, p<.01$, 그리고 집단과 과제수행조건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F(3,104)=8.28, p<.001$. 이러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 그림 2이다.

상호작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효과를 분석

표 3. 집단 및 조건별 평균선택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조 건	
	사적과제수행조건	평가자참석조건
우울-강박집단	5.94 (2.22)	7.19 (1.42)
비우울-강박집단	9.00 (2.06)	5.75 (1.18)
우울-비강박집단	6.31 (1.72)	5.29 (1.62)
비우울-비강박집단	7.25 (1.44)	7.00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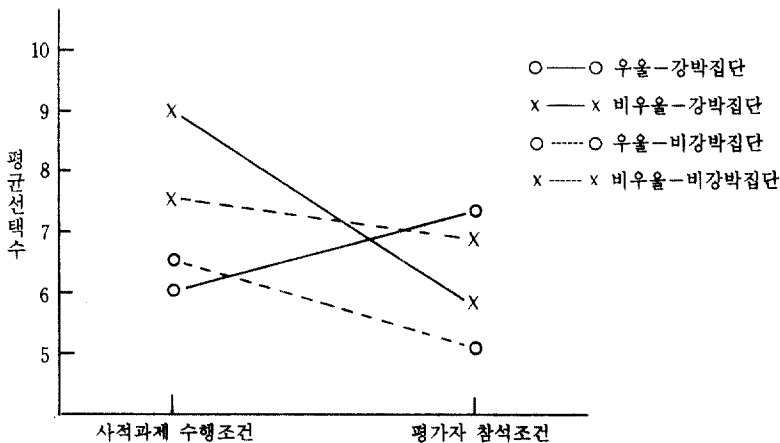


그림 2. 집단 및 조건별 평균선택수

해 본 결과, 비우울-강박집단에서 과제수행조건간 차이의 단순효과가 유의미했다, $F(1,26)=26.25, p<.001$. 즉, 비우울-강박집단의 경우 사적과제수행조건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평균선택수가 의미있게 적었다. 그러나 우울-강박집단의 경우는 경향성만을 보였다, $F(1,26)=3.12, p<.09$. 따라서 이 결과는 예언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과제수행조건 각각에서 집단간의 수행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사적과제수행조건에서는 비우울-강박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평균선택수가 많았다(우울-강박, 우울-비강박, 비우울-비강박집단 각각에 대해, $t(26)=3.78, p<.001$; $t(26)=3.75, p<.001$; $t(26)=2.62, p<.05$). 그리고 나머지 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는 우울-강박집단이 우울-비강박집단과, $t(26)=3.30, p<.01$, 비우울-강박집단보다, $t(26)=2.24, p<.05$, 평균선택수가 많았고, 비우울-비강박집단이 우울-비강박집단과, $t(26)=2.59, p<.05$, 비우울-강박집단보다, $t(26)=2.10, p<.05$, 평균선택수가 많았다.

정답항 반복확인수

정답을 맞춘 문제에서 정답항을 반복해서 제시해 고려한 평균 횟수를 집단과 조건별로 측정하였다.

정답항 반복확인수에서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times 과제수행 조건변인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와, $F(3,104)=4.39, p<.01$, 과제수행조건의 주효과가, $F(1,104)=10.94, p<.001$, 각각 유의미했다. 그리고 집단과 과제수행조건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F(3,104)=7.93, p<.001$.

상호작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비우울-강박집단에서 과제수행조건간 차이의 단순효과가 유의미했다, $F(1,26)=25.45, p<.001$. 즉, 비우울-강박집단의 경우 사적과제수행 조건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정답항 반복확인수가 의미있게 적었다. 그러나 우울-강박집단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다, $F(1,26)=2.18, n.s$. 따라서 이 결과는 예언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과제수행조건 각각에서 집단간의 수행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사적과제수행조건에서는 비우울-강박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정답항 반복확인수가 많았다(우울-강박, 우울-비강박, 비우울-비강박집단 각각에 대해, $t(26)=3.58, p<.001$; $t(26)=3.70, p<.001$; $t(26)=2.15, p<.05$), 그리고 나머지 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평가자참석 조건에서는 우울-강박집단이 우울-비강박집단과, $t(26)=3.39, p<.01$, 비우울-강박집단보다, $t(26)=2.99, p<.01$, 정답항 반복확인수가 많았고, 비우울-비강박집단이 비우울-강박집단보다 정답항 반복확인수가 많았다, $t(26)=2.05, p<.05$.

정답항 반복확인율과 정답항 반복확인시 주사수

이 두 측정치는 정답항 반복확인수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들이나 피험자가 보이는 결정의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정답항 반복확인수에서 나타난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되었다. 그 결과 정답항 반복확인수에서의 결과와 거의 일치되게 나왔다. 따라서 구체적 통계처리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규칙적 선택지 주사

선택지를 고려한 순서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문제수를 집단과 조건별로 측정하였다. 집단 \times 과제수행 조건 변인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집단 및 과제수행 조건의 주효과와 집단과 과제수행조건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집단: $F(3,104)=1.45, n.s$; 과제수행조건: $F(1,104)<1$; 집단 \times 과제수행조건: $F(3,104)=2.06, n.s$).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집단과 조건별로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우울-강박집단에서 과제수행 조건의 단순주효과가 있었다, $F(1,26)=4.96, p<.05$. 즉, 비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 수행조건에 비해 평가자참석조건에서 규칙적 주사문제수가 적었다. 따라서 비우울-강박집단만이 예언 1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집단의 단순 주효과는 사적과제수행 조건에서 경향성을 보였다, $F(3,52)=2.68, p<.06$. 따라서 사적과제수행 조건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비우울-강박집단이 우울-비강박집단과 우울-강박집단보다 규칙적 주사문제수가 많았다(두 경우 모두 $t(26)=2.18, p<.05$).

선택지 고려시간

문제의 각각의 선택지를 화면에 제시하여 고려한 평

균 시간을 집단과 조건별로 측정하였다. 선택지 고려 시간에서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 과제수행조건변인을 이원변량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집단 및 과제수행 조건의 주효과와 집단과 과제수행조건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집단: $F(3,104)=1.94$, n.s.; 과제수행조건: $F(1,104)<1$; 집단 × 과제수행조건: $F(3,104)<1$).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집단과 조건별로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집단 및 과제수행 조건에서 어떤 단순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t -검증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예언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수행점수

언어추리과제에서의 수행을 집단과 조건별로 측정하였다. 측정치는 15문제 중 정답을 맞춘 문제의 수로 하였다. 과제수행점수에서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 과제수행조건 변인을 이원변량 분석하였는데, 변량분석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있었고, $F(3,104)=4.50$, $p<.01$, 집단과 과제수행조건간의 이원상호 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F(3,104)=3.92$, $p<.01$. 과제수행조건의 주효과는 없었다, $F(1,104)<1$.

상호작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효과분석을 한 결과, 집단간 차이의 단순효과는 유의미 했으며, $F(3,52)=6.88$, $p<.001$, 우울-강박집단, $F(1,26)=4.23$, $p<.05$, 과 비우울-강박집단, $F(1,26)=8.49$, $p<.01$, 에서 과제수행 조건간 차이의 단순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 조건보다 평가자 참석조건에서 득점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비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 조건보다 평가자 참석조건에서 득점이 의미있게 낮아졌다. 이는 수행에서의 반응양식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다 신중하고 강박적인 접근을 할수록 득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적과제 수행조건에서 집단간의 수행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사적과제수행 조건에서 비우울-강박집단이 우울-강박집단과, $t(26)=4.00$, $p<.001$, 우울-비강박집단보다, $t(26)=2.20$, $p<.05$, 득점이 높았고, 비우울-비강박집단도 우울-강박집단과 우울-비강박집단보다 득점이 높았다(각각 $t(26)=3.78$, $p<.001$; $t(26)=2.37$, $p<.05$).

다음으로 수행점수가 실제로 반응양식의 차이와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응양식 측정치와 수행점수와의 상관을 구했는데, 선택지 고려시간을 제외한 모든 측정치가 수행점수와 정적 또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도 보다 신중하고 강박적인 반응양식이 득점과 더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방향으로 나왔다. 각각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조기종결 문제수: $r=-.48$, $p<.001$; 평균 선택수: $r=.41$, $p<.001$; 정답항 반복확인수: $r=.44$, $p<.001$; 정답항 반복 확인율: $r=.46$, $p<.001$; 정답항 반복확인시 주사수: $r=.37$, $p<.001$; 규칙적주사 문제수: $r=.26$, $p<.01$. 따라서 이러한 반응양식들이 과제수행점수와 높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과제수행 결과의 예언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측정치들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 및 조건에 따른 득점의 차이가 이러한 반응양식의 차이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과제수행시의 스트레스 경험

과제수행중에 느꼈던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과제수행 직후 STAI 상태불안척도를 실시하여 과제수행중에 겪었던 경험을 평정하게 하였다. 상태불안척도 점수에서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 과제수행 조건 변인을 이원변량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있었고, $F(3,104)=3.31$, $p<.05$, 집단과 과제수행조건간의 이원상호작용 효과와, $F(3,104)=2.36$, $p<.08$, 과제수행 조건의 주효과는 없었다, $F(1,104)<1$.

과제수행조건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로 t -검증을 한 결과 비우울-비강박집단만이 조건간 차이를 보였다, $t(26)=-2.65$, $p<.05$. 즉 비우울-비강박집단은 사적과제 수행조건보다 평가자 참석조건에서 스트레스를 더 경험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세 집단은 조건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조건내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계산해본 결과, 사적과제 수행조건에서는 우울-강박집단과 비우울-강박집단이 각각 우울-비강박집단과 비우울-비강박집단보다 STAI 상태불안척도 점수가 높았다(비우울-비강박집단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p<.01$ 수준에서, 우울-비강박집단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음). 그리고 우울-강박집단과 비우울-강박 집단 사이의 우울-비강박집단과 비우울-비강박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평가자 참석조건에서는 모든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우울-강박집단과 비우울-강박집단에서 나타난 차이들이 실험과제 수행시 느꼈던 정서상태(상태불안)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지적이고 동기적인 차원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과제수행 후의 주관적 평가

집단 및 조건에 따라 과제수행 후에 자신의 수행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대점수, 실제득점과 기대점수와의 차이 및 응답시 확실도를 측정하여 각각 집단(4) × 과제수행조건(2)의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런데 이 세 측정치 모두 과제수행 후에 측정된 것이고 집단과 조건에 따라 수행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대점수 자체 보다는 각각의 피험자에게 실제득점과 기대점수의 차이를 구해 분석한 것이 주관적 평가를 알아보는데 더 적절한 측정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득점-기대점수 간 편차를 먼저 분석하였다.

기대점수와 실제득점간의 편차

실험과제를 수행한 직후 실험과제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가정할 경우 피험자 자신은 몇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답하게 하여 그 점수에서 실제 수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구하

였다.

집단 × 과제수행 조건 변인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집단 및 조건의 주효과 그리고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단지 집단의 주효과와 집단 ×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경향성을 보였다(집단 : $F(3,104)=2.30, p<.08$; 집단 × 조건 : $F(3,104)=2.22, p<.09$). 이러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 그림 3이다.

집단 및 조건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평가자 참석조건에서 집단차가 있었다, $F(3,52)=2.71, p<.05$. 조건에 따라 기대점수-실제득점 편차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은 비우울-강박집단이었다, $F(1,26)=7.58, p<.01$. 즉 비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 수행조건에서는 자신의 실제 수행을 정확히 평가한 반면 평가자 참석조건에서는 과대평가 하였다. 비우울-강박집단에서의 이러한 결과와 비우울-비강박집단에서 조건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예언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우울-강박집단도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예언된 방향대로 결과가 나왔다.

각각의 조건내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사적과제 수행조건에서는 우울-강박집단이 비우울-강박집단에 비해 자신의 수행을 과대평가했으며, $t(26)=2.25, p<.05$, 평가자 참석조건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다, $t(26)=-1.96, p<.06$. 평가자 참석조건에서 비우울-강박집단은 비우울-비강박집단에 비해 자신의 수행을 과대평가했다, $t(26)=2.66, p<.05$. 이 결과들 역시 예언 2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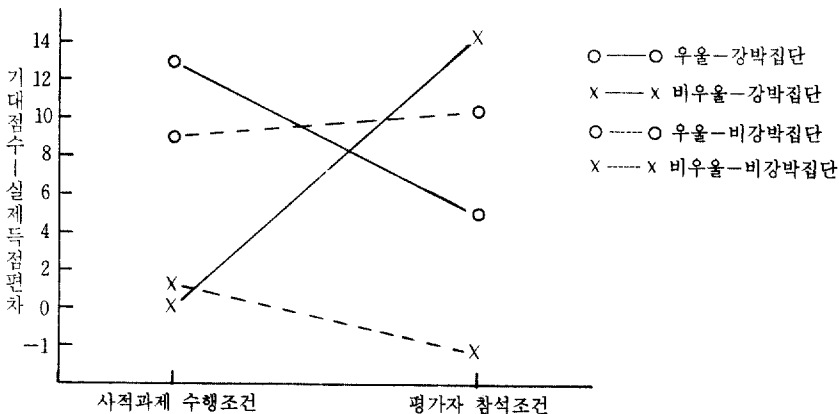


그림 3. 집단 및 조건별 기대점수-실제득점 편차

그리고 기대점수와 실제득점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던 집단과 조건을 보면, 사적과제 수행 조건에서는 우울-강박집단에서 실제득점보다 기대점수가 높아 과대평가를 보였으며, $t(13)=2.97, p<.01$, 평가자 참석조건에서는 비우울-강박집단과, $t(13)=4.04, p<.01$, 우울-비강박집단에서, $t(13)=2.16, p<.05$, 과대평가를 보였다. 나머지 집단은 실제득점과 기대점수의 차이가 적어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보였다.

기대점수

실험과제를 수행한 직후 실험과제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가정할 경우 피험자 자신은 몇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답하게 하여 그 점수를 집단과 조건별로 측정하였다.

집단 × 과제수행 조건 변인을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 집단 및 과제수행 조건의 주효과와 집단과 과제수행조건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집단 : $F(3, 104) < 1$; 과제수행조건 : $F(1, 104) < 1$; 집단 × 과제수행조건 : $F(3, 104) = 1.19, n.s.$).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집단과 조건별로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떤 단순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조건내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사적 과제수행조건에서 비우울-비강박집단이 우울-강박집단보다 자신의 점수를 높게 기대하는 경향성만이 있었다, $t(26)=2.00, p<.06$. 따라서 기대점수만을 분석했을 때 예언 2에서 가정한 결과의 방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시 확신도

언어추리검사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문제에서 정답함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답했는지를 0에서 100%로 답하게 하였다.

집단 × 과제수행조건 변인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집단 및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F(3, 104) < 1, F(1, 104) = 1.90, n.s.$). 그렇지만 집단 × 조건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했다, $F(3, 104) = 3.09, p < .05$.

상호작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효과분석을 한 결과, 집단간 차이의 단순효과는 두 과제수행조건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우울-비강박집단에서 과제수행조건간 차이의 단순효과가 유의미했다, $F(1, 26) = 5.03, p < .05$. 즉, 비우울-비강박집단은 사적과제 수행 조건보다 평가자 참석조건에서 응답시 확신도가 떨어졌다. 반면 우울-강박집단과 비우울-강박집단은 조건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예언과는 반대되는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는 사후 질문지가 사적인 상황에서 완성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조건내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사적과제 수행 조건에서는 비우울-비강박집단이 우울-강박집단에 비해 응답시 확신도가 높았다, $t(26) = 2.44, p < .05$. 평가자 참석조건에서는 어떤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비우울-강박집단은 반응양식 측정치들에서 모두 예언된 방향의 결과를 보여 주었고, 수행 후 자기평가 중 기대점수-실제득점간 편차에서도 예언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울-강박집단은 조기종결문제수에서만 예언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다른 측정치에서는 경향성만을 보이거나 또는 예언을 지지하지 못했다. 즉 과제수행시 반응양식에서의 사적-공적상황의 차이에 따른 효과는 비우울-강박집단에서 유의미했고 우울-강박집단에서는 예언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리고 과제수행 후의 주관적 평가에서는 비우울-강박집단에서만 예언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리고 비우울-비강박집단은 예언대로 두 조건 모두에서 비교적 신중한 선택을 하였다. 각 집단 및 조건에서 선택지 고려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도 지지되었다.

그리고 각 조건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왔는데 사적과제 수행 조건에서는 비우울-강박집단이 우울-강박집단을 비롯한 다른 집단보다 더 신중하고 우유부단한 선택을 보인 반면 평가자 참석 조건에서는 우울-강박집단이 비우울-강박집단보다 더 신중하고 우유부단한 선택을 보였다. 그리고 과제수행 후 내린 주관적 평가의 경우, 사적과제수행 조건에서는 우울-강박집단이 자신의 수행을 과대평가한 반면 평가자 참석조건에서

는 비우울-강박집단이 자신의 수행을 과대평가 하였다. 다른 집단들은 자신의 수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언되지 않았던 결과들이나 집단간 차이의 중요한 측면들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Tesser(1980)의 자기 평가유지모형(SEM: Self Evaluation Maintenance Model)이다. 이 모형에서는 어떤 속성 또는 차원이 어느 개인의 자기정의(self-definition)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그것이 그 개인의 자기평가를 보호 또는 증진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가정한다. 즉 자신의 사적자기평가를 보호하고 실험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정적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Tesser, 1980; Tesser & Del Paulhus, 1983). 여기서 사적자기 평가보호는 자기평가 유지전략(self-evaluation maintenance strategy)에 의한 것으로 주로 사적인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이 유도된 상황(예, 거울이 있는 경우)이나 소인적으로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사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루어지며 그 측면도 자아의 개인적이고 내현적인 측면(자신의 사고, 태도, 감정, 동기 등)에 관한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정적평가를 받으려 하는 것은 공적자기 제시 전략(public self-presentation strategy)에 따르는 것으로 주로 공적인 자의식이 유도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가정된다(Carver & Scheier, 1978; Scheier & Carver, 1977). 그렇지만 사적-공적상황 모두에서 이 두 기제가 동시에 일어나며 단지 어느 하나가 더 우세할 뿐이다(Carver & Scheier, 1978).

따라서 공적자의식이 유도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 대상으로 보며 행동의 조절은 주로 지각된 또는 투사된 외적 조건이나 기대에 의해 영향받게 된다. 반면 사적자의식이 유도되면, 주의의 초점은 자기 자신의 동기나 지각에 주어지고 따라서 행동의 조절은 내적 가치, 흥미, 감정에 의해 영향받는다(Carver & Scheier, 1978; Plant & Ryan, 1985; Tesser & Del Paulhus, 1983).

Carver와 Scheier(1982)의 통제이론(control theory)과 Ryan의 동기이론(Plant & Ryan, 1985)도 Tesser의 모형과 거의 동일한 가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공적자의식이 유도한 경우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자기제시에 주력하며 주어진 과제 자체에 대한 내적 동기는 감소하는 반면, 사적 자의식이 유도되면 자기 자신의 내적동기가 유지 또는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동기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위의 이론들을 본실험의 결과들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제수행에서의 반응양식면에서 보면, 사적과제수행조건은 자기평가 유지전략과 관련되며 자기 자신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개념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자참석조건은 자기 제시 전략과 관련되며 피험자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평가자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쓰고 비판을 피하고 자기 자신의 바람직한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비우울-강박집단이 사적과제수행조건보다 평가자참석조건에서 과제수행시 신중성과 우유부단성이 줄어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과제에서 지나친 신중성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인상관리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적과제수행조건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신중성을 보인 것은 완벽성을 추구하는 자신의 태도와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제수행에 대한 내적 동기가 유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울-강박집단의 경우를 보면, 우울-강박집단은 조기종결문제수를 제외하고는 사적과제수행조건과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 상황의 차이가 우울-강박집단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조기종결문제수 이외의 다른 측정치들에서도 예언된 경향성 또는 예언된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비우울-강박집단에서와 같이 명확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우울-강박집단의 경우 소인적으로 자의식이 높아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 지향적 주의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우울-강박집단의 경우 소인적으로 자기 지향적 주의를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평가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자의식을 가졌을 것이

라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주의(self-attention)에 대한 소인성(predispositions)에서 다르며, 특히 우울, 불안집단과 같은 임상집단의 경우 소인적으로 자기지향적이라는 보고들(Scheier & Carver, 1977; Carver & Scheier, 1978)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소인적으로 자기지향적인 사람들은 공적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존재, 속성, 감정을 더 의식하고 자신의 특출한 부분에 더 주의를 두며, 자신의 정서에 더 반응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강박집단의 경우 공적상황을 조작한 것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조기종결문제수에서 차이를 보인 것과 그 외의 측정치들에서도 경향성을 보인 것은 평가자참석 조건에서 자기지향적 주의가 더 강력했음을 시사하며, 우울-강박집단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짐으로 인해 공적과제수행에서 상대적으로 자신감의 부족을 보여 신중한 문제해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실험에서 우울-강박집단은 사적과제수행조건후에 자신의 수행을 과대평가 했는데 이는 우울집단을 대상으로 한 Benassi와 Mahler(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우울정서를 동반한 집단이 사적인 조건에서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보일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대한 반발로서 새로운 자기의 제시를 위한 시도로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비우울-강박집단의 경우는 평가자참석조건에서 자신의 수행을 과대 평가했는데, 이는 과제수행시에 보였던 자신감과 일관된 태도를 보인것으로 예언과 일치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자신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실험의 경우 주관적 평가가 사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두 조건 모두 수행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질문지에 기록해서 실험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었으므로 자기제시책략이 상당히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관적 평가에 관한 본 실험의 결과를 사적-공적 상황의 차이에 대한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주관적 평가시에도 사적-공적상황을 명확히 조작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본 실험의 결과들을 Tesser(1980)의 자기평가유지모형과 Carver와 Scheier(1978, 1982), Scheier와 Carver(1977, 1980)의 통제모형, Deci와 Ryan(1985)의 인지적평가모형(또는 동기이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에 의해 설명하였다. 즉 피험자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지하고 비판을 피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정서를 무시하고 행동과 인지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Hodgson과 Rachman(1972), Beech와 Liddell(1974), Röper와 Rachman(1976) 등은 강박적 행동이 불안을 감소시켜 준다는 불안감소가설(anxiety reduction hypothesis)에 초점을 두고 사적-공적상황에서의 강박증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확인강박집단(checker)이 실험자가 없고 혼자 있을 때 장애를 더 겪음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연구자가 그 환자의 치료자였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자를 신뢰했고 따라서 연구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오염대상 접촉시에도 불안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Beech & Liddell, 1974). 이러한 결과들은 사적-공적상황에서 강박집단이 느끼는 불안의 중요성과 공적상황을 유발하는 대상의 중요성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강박집단이 주어진 상황을 정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지적-행동적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밝혀내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우울-비강박집단의 결과가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비우울-강박집단과 유사한 방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물론 두 집단간에 차이는 있었지만 사적-공적 상황차이에 대한 반응의 방향성은 거의 일치되었다. 이는 우울과 강박과의 관계에서 우울과 강박증상 중 하나만 보이는 집단과 우울과 강박증상 모두를 보이는 집단을 구분짓는 것이 단순히 우울과 강박을 나누어 구분짓는 것보다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나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기지향적 주의를 유도함으로써 나타는 변화의 양상이 비슷했다는 것은 강박과 우울 중 어느 한 증상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기 보다는 두 증상이 연합하여 생긴 특징의 결과로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

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두 증상 중 어느 한 증상만 보이는 집단과 두 증상 모두 보이는 집단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이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집단을 선발하거나 두 집단이 혼합될 가능성이 높아 강박증이나 우울증의 특성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우울집단이나 강박집단 등의 임상집단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보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우울집단이나 강박집단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이어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감의 부족을 보인다고 가정해 왔다(예, Heppner et al., 1985; Miller & Seligman, 1975; Perkins et al., 198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특성들이 다분히 상황적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우울 또는 강박집단이 자신의 수행을 과대평가하고 통제집단은 오히려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Bennassi와 Mahler(1985)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던 결과이다. 따라서 임상집단이 가지는 문제가 어떤 한 부정적인 측면이 지속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른 변화가 심하다는 것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일반화가능성의 문제로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피험자들이 모두 대학생 집단에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환자집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과제특정적인 것일 수 있다. 즉 피험자들이 주관적 평가시에 보인 자신감이 본 연구에 사용된 언어추리검사과제가 대학생집단에서는 쉬운 과제로 여겨졌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더 어려운 과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대학생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을 사용해도 똑같은 자신감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의 존재로서 공적 상황을 조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주의조작이라기 보다는 피험자로 하여금 타인의 평가에 반응하게 하는 동기조작의 측면을 많이 가진다. 따라서 순수한 주의조작의

효과는 알 수 없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각이 동기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가정(예, Wicklund & Gollwitzer, 1987)에 근거하고 있지만 동기적 측면이 개입되지 않는 주의방향 조작에 의한 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사적-공적상황의 차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거울이나 텔레비전 카메라를 사용해서 자기초점적 주의를 유도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과제수행시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강박집단이 약점을 보이는 상황이 시간제한이 있는 상황이고(Reed, 1985) 또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시간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시간제한 유무도 함께 조작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수준에 따라 강박집단을 구분했는데 강박집단이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이므로 강박집단을 그 중증상에 따라 나누거나(예, 확인 강박집단과 청결강박집단) 또는 우울이 아닌 다른 증상집단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강박증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험불안집단이나 대인불안집단에 본 연구의 절차를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광윤(1978). 강박신경증 증상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7-1, 74-82.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산업조직심리연구실(미발표). 코오롱 적성검사 예비조사문항.
- 원호택·이민규(1984). 강박장애의 행동치료에 대한 일고찰. *학생연구*, 19, 52-64.
- 이민규·원호택(1988). 강박장애의 인지적 특성. *심리학의 연구문제*, 3, 375-399.
- 이옥정(1988). 대인불안에서 주의방향이 Stroop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Barlow, D. H.(1988). *Anxiety and Its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eech, H. R., & Liddel, A.(1974). Decision-making, mood states, and ritualistic behavior among obsessional patients. In H. R. Beech(Ed.). *Obsessional States*. London: Methuen.

- Benassi, V. A., Mahler, H. I.(1985). Contingency Judgments By Depressed College Students:Sadder But Not Always Wis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323-1329.
- Carr, A. T.(1974). Compulsive neurosi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1*, 311-318.
- Carver, C. S., & Scheier, M. F.(1982). Outcome expectancy, locus of attribution for expectancy, and self-directed attention as determinants of evalu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18*, 184-200.
- Carver, C. S. & Scheier, M. F.(1982). Self-awareness and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In G. Underwood(Ed.). *Aspects of consciousness* (vol. 3): *Awareness and self-awareness*. London: Academic Press.
- Duval, S., & Wicklund, R. A.(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Emmelkamp, P. M. G.(1982). *Phobic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Prenum Press.
- Gotlib, I. H., & Asarnow, R. F.(1979). Interpersonal and im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in mildly and clinically depresse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86-95
- Hepner, P. P., Baumgardner, A., & Jackson, J.(1985). Problem-solving, self-appraisal, depression, and attributional style: Are they relate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105-113.
- Hodgson, R. J., & Rachman, S. J.(1972). The effects of contamination and washing in obsessional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0*, 110-117.
- Insel, T. R.(1984).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Janis, I. L.(1982). Decision-making under stres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pp. 69-80). New York: Free Press.
- Keinan, G.(1987). Decision-making under stress: Scanning of alternatives under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threa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39-544.
- Klein, D. C., Fencil-Morse, E., & Seligman, M. E. P. (1976). Learned helplessness, depression, and the attribution of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08-516.
- Miller, W. R., & Seligman, M. E. P.(1975). Depression and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4*, 228-238.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 Perkins, S. C., Meyers, A. W., & Cohen, R.(1988). Problem-solving ability and response to feedback in peer-nominated depressed 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89-102.
- Plant, R. W.,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the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self-awareness, and ego-involvement: An investigation of internally controlling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53*, 435-449.
- Rachman, S. J., & Hodgson, R. J.(1980). *Obsessions and Compulsions*. New Jersey: Prentice-Hall.
- Reed, G. F. (1985). *Obsessional Experience and Compulsive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Roper, G., & Rachman, S. J.(1975). Obsessional-compulsive checking: Replication and develop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4*, 25-32.
- Sacco, W. P., & Hokanson, J. E.(1978). Expectations of success and anagram performance of depressives in a public private sett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122-130.
- Salkovskis, P. M., Harrison, J.(1984). Abnormal and normal obsessions - A replic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2*, 549-552.
- Scheier, M. F., & Carver, C. S.(1977).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Attraction, repulsion, el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625-636.
- Tesser, A.(1980). Self-esteem maintenance in family dynam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gy, 39, 77-91.

Tesser, A., & Del Paulhus (1983). The Definition of Self: Private and Public Self-Evaluation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72-682.

Thyer, B. A., Curtis, G. C., & Fechner, S. L.(1984). Fear of criticism is not specific to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2, 77-80.

Turner, R., Steketee, G., & Foa, E.(1979). Fear of criticism in washer, checkers and phobia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5, 1261-1268.

Wicklund, R. A., & Gollwitzer, P. M.(1987). The fallacy of the private-public self-focused disti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55, 491-523.

A Study on the Response Style in Performing Problem-solving Task and Subjective Evaluation in Depressive-, Nondepressive-Obsessive Group.

Hun-Jin Lee and Ho-Taek 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and compare the response style on problem-solving task and subjective self-evaluation after the task performance in the depressive-obsessive group, nondepressive-obsessive group, depressive-nonobsessive group, and nondepressive-nonobsessive group. These group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ior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obsession. It was hypothesized that subjects in the nondepressive-obsessive group would regard their symptoms as ego-syntonic and have a relative confidence. On the contrary, subjects in the depressive-obsessive group would regard their symptoms as ego-dystonic, resist their symptoms, and have more disturbances in daily life. So they would have a negative self-concept and lack of confidence. Thus it was predicted that in the evaluator presence condition in which self-directed attention was induced, the depressive-obsessive group would show more lack of confidence and indecisiveness in task performance and subjective evaluation. In the nondepressive-obsessive group, it would show more confidence, less indecisiveness, and overestimate their performa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ubjects in the nondepressive-obsessive group showed more confidence and less indecisiveness in the evaluator presence condition than in the private task performance condition. And they overestimated their performance after they carried out their task in the evaluator presence condition. Subjects in the depressive-obsessive group showed the trend that indecisive task performance style appeared in the evaluator presence condition more than in the private task performance condition. They overestimated their performance after carrying out their task in the private task performance conditio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control theory, and motivation theory.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therapeutic suggestion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